

‘뒷심’ 심석희 올 첫 대회 우승 질주

회장배 쇼트트랙 1500m서 최민정에 밀려 5위까지 뒤쳐졌다 뒤집어...최민정은 실격



18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여자 일반부 1500m 결승에서 서울시청 심석희(맨 앞)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서울시청)가 올해 열린 첫 국내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성남시청)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실격 처리돼 아쉬움을 삼켰다.

심석희는 18일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첫날 여자 일반부 1500m 결승에서 2분24초80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당초 심석희는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앞서 들어온 최민정이 두 차례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되면서 1위로 올라섰다. 김아람(고양시청·2분24초897)이 2위, 황현선(전라북도청·2분24초993)이 3위를 기록했다.

초반 여유롭게 경기를 시작한 심석희는 6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섰지만, 최민정이 인코스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밀려 2바퀴를 남기고 5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심석희는 곧바로 스피드를 올려 바깥으로 질주,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민정은 중반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5바퀴를 남기고 직선에서 다른 선수와 접촉한 뒤 2바퀴

를 남기고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레인을 변경할 때 발생한 접촉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남자 일반부 1500m에서는 홍경환(고양시청)이 2분32초533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베테랑 박윤기(고양시청·2분 32초671)가 2위, 임용진(고양시청·2분32초752)이 3위를 차지했다.

이날 출전 예정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황대현(한국체대)은 전날 기권했다.

이번 회장배는 올해 열린 첫 국내대회로 지난해 11월 제37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연합뉴스

광주 남부대 수영선수단 창단

경영·수구 18명으로 구성...감독에 전 수구 국가대표 감독 이승재 교수

남부대학교가 수영선수단을 창단했다. 18일 남부대에 따르면 수영선수단은 경영과 수구 종목 18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 운영은 스포츠레저학과 유종상 교수가 담당하고 초대 감독에는 전 수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한 이승재 교수가 선임됐다.

경영지도 담당에는 김영훈 광주시체육회 전임 지도자가 선임됐다.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서 경영과 수구 종목의 팀이 동시에 창단되는 것은 남부대학교가 처음이

고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현재 남부대에는 국제 규모의 수영장이 있으며 앞으로 건립될 한국수영진흥센터와 함께 수영 명문 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대 조성수 총장은 "수영선수단 창단을 통해 대한수영연맹, 광주시체육회, 광주수영연맹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발전과 우수한 수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광주시체육회, 광주수영연맹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발전과 우수한 수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광주시체육회, 광주수영연맹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발전과 우수한 수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광주시체육회, 광주수영연맹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발전과 우수한 수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매킬로이, 비거리 늘리기에 매달리지 말라”

라이더컵 유럽팀 단장 해링턴 충고

올해 9월 열리는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유럽팀 단장을 맡은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이 후배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에 비거리 증대에 매달리지 말라는 애정 어린 충고를 했다.

해링턴은 “비거리 증대에 매달리는 것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셈”이라고 18일(한국시간) 골프다이제스트에 말했다.

열지 말라는 경고에도 열었다가 상자 안에 갇혀 있던 재앙과 고민 등 악재가 빠져나왔고, 놀라사 황급히 상자를 닫는 바람에 희망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 상자다.

매킬로이는 최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충격적인 컷 탈락을 당한 뒤 괴력의 장타자로 변신한 브라이슨 디샬보(미국)를 따라 하려다 실패했다고 실तो한 바 있다.

매킬로이는 2019년까지는 비거리에서 디샬보를 훨씬 능가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의 장타자였다.

하지만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을 통해 몸집을 크게 불리면서 급격하게 비거리를 늘린 디샬보에 지금은 한참 뒤진다.

매킬로이는 “작년 10월부터 스윙 스피드를 높이고 스윙 궤도를 더 낮게 바꾸고 몸통 회전을 더

늘렸다. 볼은 더 멀리 날아갔지만, 스윙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 다시 예전 스윙을 되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해링턴은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나 역시 비거리 증대에 매달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줄곧 비거리를 늘리는데 골몰했다는 그는 “비거리 증대를 쫓는 건 일종의 중독이다. 언젠가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비거리는 줄어든다. 그걸 받아들이야 한다”는 그는 “비거리 증대에 매달리는 것보다 경기에 나섰을 때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링턴은 특히 시속 180마일인 매킬로이의 볼 스피드는 대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속 190마일로 볼을 치는 장타자는 지금 투어에서 디샬보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한 해링턴은 모두 디샬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만 50세가 되는 해링턴은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 15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6승을 올렸다. 그중 메이저대회에서도 3차례 우승했고 지금도 유럽, 미국, 그리고 시니어투어 등에서 뛰고 있다.

매킬로이는 올해 해링턴이 단장을 맡은 라이더컵 유럽팀에서 핵심 전력이다. /연합뉴스

전신마비 아들 휠체어 밀며 40년 달린 위대한 아버지 세계를 감동시킨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 하늘로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 딕 호잇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호잇은 17일(현지 시간) 오전 매사추세츠주 올랜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다. 가족들은 그가 심장 질환을 앓았다고 전했다.

호잇은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 릭(59)과 함께 꾸린 ‘팀 호잇’(Team Hoyt)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뱃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를 안게 됐다.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컴퓨터 장치 없이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다.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릭은 15살 때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라켓을 사용해서 하는 하키 비슷한 경기) 선수를 위한 자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고 걸었다.

참가번호 00번을 단 호잇 부자는 끝에서 2번째로 완주 테이프를 끊었지만, 이것이 ‘팀 호잇’의 시작이 됐다.

릭은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땀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딕 호잇 80세로 별세...각계 추모 물결 부자 마라톤 72회·철인3종 257회 완주

느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호잇은 이런 아들을 위해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다. 나이가 그는 수영 연습과 자전거 훈련을 하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했다.

‘팀 호잇’은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철인코스 6차례), 듀애슬론 22차례 등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만 32차례 완주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총 6010km)하기도 했다.

세계 최강의 철인을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은 고무 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아들이 앓은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탔다.

아들 없이 출전한다면 놀라운 기록이 나올 거라는 주위 사람들 반응에 아버지는 “릭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첫 번째 완주에 16시간 14분이 걸렸던 마라톤 최고기록

은 2시간 40분 47초까지, 철인3종 경기 기록은 13시간 43분 37초까지 각각 단축했다.

처음엔 불편한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던 이들은 박수로 응원하기 시작했다. 자신제단 ‘팀 호잇’의 회원이 점점 늘었고, 2013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인근에 호잇 부자의 동상이 세워졌다.

호잇은 만 73세이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을 끝으로 장거리 대회 출전은 자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폭탄테러 사건으로 대회가 중단됐고 결국 2014년 다시 출전, 7시간 37분 33초 기록으로 완주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호잇의 사망 소식에 각계각층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체육협회(BAA) 측은 “그의 결단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은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자 전설이었다”면서 애도했다.

13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릭은 1993년 보스턴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연합뉴스



보스턴 마라톤에서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뛰고 있는 딕 호잇.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미나리
- 2관 모리타니안, 소울, 웨이 다운
- 3관 모리타니안, 라이와 마지막 드래곤, 웨이 다운
- 4관 미션 파서블
- 5관 미나리,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라라의 신비한 모험
- 7관 세네카를 정말 먼 곳, 미션 파서블
- 8관 세네카를 라이와 마지막 드래곤, 그녀가 사라졌다, 톰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극작 상상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